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홍재웅*

차 례

1. 들어가며
2. 사회민주주의와 초기 스웨덴 문화정책의 형성
3. 스웨덴 문화정책의 변천 과정
 - 3.1 두엘룬드의 모델
 - 3.2 문화의 민주화 단계(1960-1975)
 - 3.3 문화민주주의 단계(1975-1985)
 - 3.4 사회적 경제적 도구화 단계(1985-1995)
 - 3.5 경제적 정치적 식민화 단계(1995-2007)
4. 2007년 이후의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4.1 북유럽의 정치협력과 문화협력
 - 4.2 북유럽 컬처 포인트(Nordic Culture Point)와 예술의 독립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문화는 개인적인 차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의 원동력이 된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다. 최근의 문화정책 담론이 문화산업 육성이나 문화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문화가 경제와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켈처노믹스¹⁾가 최근 21세기 경제의 큰 흐름이 되어버린 것도 이러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면 문화를 이윤창출이라는 등식관계로만 규정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화의 이윤창출이라는 결과론적 경제적 도식에서 탈피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개체로써 그들의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토양을 제공하는 문화정책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문화 정책 결정자가 임명이 될 때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표피적인 현상에 매달려 문화를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장기적인 발전이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문화와 이윤창출이라는 등식관계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가나 이를 체험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찍이 스웨덴 정부는 문화적 평등이 경제적 평등이나 사회적 평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1) 켈처노믹스(Culturenomics)¹⁾는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를 융합한 합성어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페테르 두엘룬드(Peter Duelund)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용어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도 변화해왔는데, 이 용어가 등장했던 1990년대 초창기에는 어떤 국가의 문화를 이용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켈처노믹스가 정의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와 산업의 창의적 융합, 문화의 상품화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쉽게 말해 '켈처노믹스'는 '문화가 곧 경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제품 기술이나 서비스로 경쟁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한 '문화'를 이용해 깊이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켈처노믹스이다. 이와 같은 예로 기업은 광고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손을 잡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 등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처럼 켈처노믹스는 단순히 문화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의 부가 가치를 경제와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마케팅과 그 차이가 있다.

들에게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라고 여겼다. 물론 스웨덴 정부도 1900년대 전반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극히 소수 상류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끊임없는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1960년대 이후 스웨덴 정부는 연구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문화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본고는 스웨덴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스웨덴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정책을 통해서 스웨덴 정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민주주의와 초기 스웨덴 문화정책의 형성

스웨덴 문화정책의 근간은 문화민주주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예술과 문화는 복지사회의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스웨덴 모델이라고 불리는 복지정책의 형성·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800년대 중반에서 1910년대 이르는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부유해지면서 왕과 귀족들에게 한정되어있던 예술과 문화가 차츰 널리 전파되었다. 복지국가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웨덴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민주당의 집권을 통한 예술문화와 문화정책의 사회 민주주의적 특징이 형성되었다.(손동호, 나송주, 홍재웅, p. 187)

특히 1910년 4월 1일에 '무대(Skådebanan: 연극이라는 옛 스웨덴어)'라고 부르는 관객 재단이 생겨나면서 이제까지 연극을 접하지 못하던 관객들에게도 연극을 보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연극이외에도 음악, 춤,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모두 포함하여 예술을 널리 알릴 수 기회를 제공했다.(손동호, 나송주, 홍재웅, p. 198-199) 관객재단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적 그룹뿐 아니라 학생연합, 조합과 같은 조직들, 이민자협회, 장애인 운동연합 등 다양한 그룹들이 재단에 가입해 있다. 관객 재단 '무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위한 교육이다. 실제로 이 재단은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연극 단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

해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후 1927년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예산이 편성되면서 관객재단의 제 2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20년대 세계공황의 불길은 스웨덴에도 번지기 시작한 1930년대에 실업률이 25퍼센트까지 급격히 높아지자, 스웨덴 국민들은 사회민주당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회민주당의 약진으로 탄생한 한손(P. A. Hansson) 수상 내각은 ‘인민의 집(Folkhemmet)’으로 비유되는 복지국가 형성에 착수했다.²⁾ 전통적인 가족이념을 개개의 가족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시킨 개념으로 스웨덴 복지국가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1932년에서 1939년 사이에 교육·종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앵베리(A. Engberg)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으면서 1934년에 스웨덴 국립 순회극단(Riksteater)이 설립되었다: “수도에 사는 시민들만 최고급의 연극공연을 감상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http://www.riksteatern.se/content/historia>)”³⁾

1938년에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 살트헤바덴 협정을 계기로 1940년대 들어서는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사회민주당 정권의 기반이 안정되었다. 194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험 분야에도 적용되는 복지국가의 기초가 다져졌다.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해나가는데,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물론이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세대 간 혹은 개인의 생애 단계 간의 수평적인 재분배를 강화하면서 철저한 보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풍요로운 사회’⁴⁾에서는 개인의 자유추구와 공공책임이 일체가 됨이 강조됨에 따라서(Erlander, p. 8), 1950년대에는 주노동시간이 3시간 단축되었고, 4

2) 1928년에 있었던 의회 논의에서 한손 수상이 스웨덴의 장래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그 희생으로 이득을 얻거나 하는 자가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좋은 집”에 비유한 것에서 유래되었다.(Arbetslöhetskommission: AK 1928, nr 3:11)

3) “Det är icke blott huvudstadens befolkning som har berättigat anspråk på att komma i åtnjutande av förstklassig teaterkonst. Nationen i övrigt kan med skäl resa liknande anspråk”.

4) 엘란데르(Erlander) 수상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민주주의 목적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Erlander, 1962)

주간의 법정유급휴가의 제도화가 실현 직전에 있었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자유선택사회의 실현이며 이러한 기반위에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평등이라고 강조되는 평등화의 개념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이후 스웨덴 문화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것'이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을 통해 스웨덴을 넘어 북유럽의 문화정책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후 스웨덴의 문화 정책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문화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페테르 두엘룬드(Peter Duelund) "Nordic Cultural Policies, a Critical View"의 고찰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다.(Duelund, 2008)

3. 스웨덴 문화정책의 변천 과정

3.1 두엘룬드의 모델

두엘룬드는 자신의 논문에서 하버마스(J. Habermas)의 '생활세계와 체계' 이론론을 바탕으로 하여 북유럽의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분석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먼저 경제체계, 정치체계, 사회문화체계를 설정하고 이들의 상호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경제체계는 사회문화체계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또는 투입하고, 정치체계는 법적·행정적 활동을 사회문화체계에게 제공하며, 사회문화체계는 정치체계에게 정당화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생활세계와 체계, 양자의 합리화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는 한에서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진보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체계의 구조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구조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사회적 합리화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대화의 장애가 일어난다(하버마스, II, p. 293).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진척되면서, 생활세계는 경제와 행정처럼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형식적으로 조직되는 행위영역들로부터 분리되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의존적이 된다. 체계명령들에 의한 생활세계의 부속화(Mediatisierung)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의존성은 물질적 재생산에서의 위태로운 불균형이 (그러니까 체계이론적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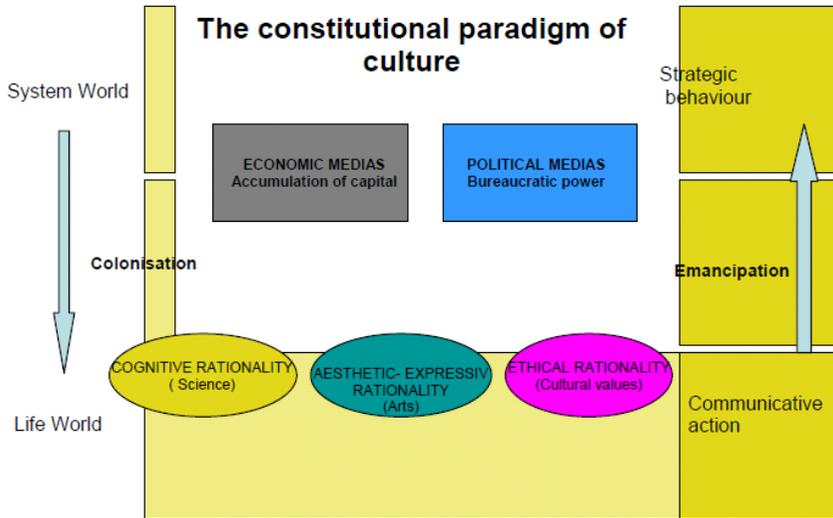
위기가)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에서 장애를 (즉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기나 혹은 병리현상을) 유발하는 대가를 치르면 서만 회피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내부 식민지화라는 사회병리적 형식을 띤다.(하버마스, II, p. 475)

생활세계는 문화적 창조와 전승, 사회적 구성원의 사회화, 사회적 통합, 즉 상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하버마스 II, p. 208-209). 두엘 룬드는 문화적 유형들이 생활세계적인 맥락에 결부되어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화적 유형들은 각각 하나의 추상적 타당성 관점 아래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인지적-도구적(과학), 윤리적-실천적(도덕) 그리고 미학적-표출적(예술) 지식 복합체의 고유 법칙성이 부각된다.(하버마스, II, p. 505)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 사회⁵⁾에는 생활세계(예술과 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식민화하는데 체계사회의 본래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합의적 결과를 도출하는 생활세계의 내적구조를,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조종되는 자족적 체계인 목적 합리적 하위체계의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의해, 생활세계의 고유한 특성과 정합적 체계가 붕괴되고 상호이해의 통합적 구조가 무력화됨으로써, 이른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하버마스, II, p. 513, 516, 547, 564, 572, 601).

5) 하버마스가 파악하고 있는 ‘후기자본주의’의 특징적인 경향은 국가가 시장개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경제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해소시키고, 교환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는 복지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국가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림 1. 두엘룬드 모델>



두엘룬드는 '목적합리성'과 '의사소통합리성'의 범주적 구분을 사회진화론의 지평으로 확대해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이론'으로 정식화한 하버마스의 모델을 통해서, 역사적인 혹은 동시대적인 콘텍스트의 문화정책을 위한 분석모델로 삼았다. 체계가 자신의 형성을 가능케 한 토대인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현상이나 생활세계의 의사소통구조를 본래의 상대로 회복하고 체계와 생활세계 양자가 상호 균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서 두엘룬드는 스웨덴 혹은 북유럽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왔는지를 매우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두엘룬드의 모델, '문화의 법제적 패러다임(The Constitutional Paradigm of Culture)'에서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의 예를 사회국가적 법제화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생활세계와 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를 매개하는 지점에 법이 위치한다는 논리를 통해서, 두엘룬드는 법이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생활세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양상을 그려냈다. 다시 말해서 법이 매개 역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계의 논리를 과도하게 생활세계에 적용하면

서 체계의 절대명령 또는 권력·자본 혹은 관료적 행정과 화폐와 같은 지배매체의 논리에 복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공간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을 활성화해서 의사소통적으로 구조화된 행위 영역이 체계논리에 의해 형식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두엘룬드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화'라는 형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치적이고 미적인 의사소통을 생활세계의 해방으로 보았다.(하버마스, II, p. 475)

두엘룬드의 모델에서처럼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행위들은 정치 매체(공공 문화부처)와 경제 매체(상업적 문화산업)와 같은 전략적 대리인에 종속되어 있다. 하버마스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체계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효과를 정치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개념을 포기하고 조절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부 식민지화 명제는 경제와 국가라는 하부체계들이 자본주의적 성장의 결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깊숙이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 과정에 침투하는 것이다.(하버마스 II, p.564) 두엘룬드는 경제와 국가라는 하부체계들의 시각에서 보면, 각각의 인접한 생활세계 영역과의 상호작용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의 형식으로 수행된다는 하버마스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3.2 문화의 민주화 단계(1960-1975)

베트남전쟁과 반전운동, 68운동, 쿠바혁명,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암살사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 등은 1960년대의 시대정신이였다. 당시 스웨덴의 정치적 기상도도 전통적 윤리의 규범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새 사회로의 지향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문화에 대한 시각에 보다 급진적인 경향의 연극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홍재웅, p. 25)

1960년대의 시대정신은 문화에도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의 민주화 단계는 복지국가의 실현과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치와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 국가적 관심사로까지 격상되었다. 특히 1964년에 행해졌던 스웨덴 최초의 과학적인 사회실태조사에서 스웨덴 전인구의 10% 미만만이 연극을 경험했다는 사실로 인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연예술의 주요관객이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에 한정되어있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소외되었던 많은 집단들 - 노인, 어린이, 소수 인종 집단, 지방 소도시 주민들 - 이 가능한 한 균등하게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스웨덴 교육부 장관, 올로프 팔메(Olof Palme)는 스웨덴의 문화정책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1968년에 문화예술위원회(Kulturrådet)를 설립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양한 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신문화 정책(Ny kulturpolitik)'이라고 불리는 약 4년간의 활동 결과물인 백서를 1972년에 출간하였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들과 이 백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1974년에 이 백서와 함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의안에서 교육부 장관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평등에 기여하는 것(att medverka till att skapa en bättre samhällsmiljö och bidra till jämlikhet)"(Proposition 1974:28)이 문화 정책의 기본 원리라고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향후 스웨덴 문화정책을 이끌어 갈 중요한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스웨덴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이 8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러한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모든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문화적 활동에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 간의 상호접촉을 증진한다.

셋째, 문화 영역에서 상업주의의 부정적 폐해를 상쇄한다.

넷째, 문화 영역에서 문화 활동과 정책결정기능화 활동의 분산화를 장려한다.

다섯째, 소외된 집단의 경험과 요구를 폭넓게 고려하고 관심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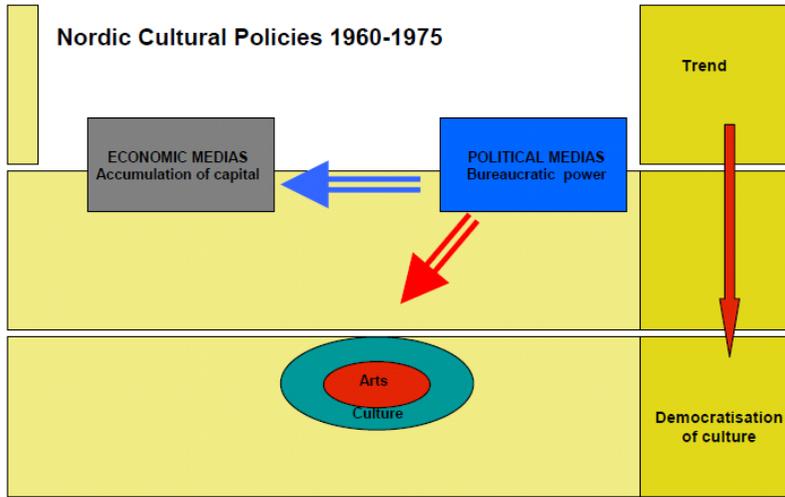
여섯째, 예술적이고 문화적 활동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스웨덴 전래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여덟째, 언어와 국가적 경계를 넘어 문화 영역에서 경험과 생각의 교류를 촉진시킨다.(같은 자료, 1974:28)⁶⁾

6) ① Kulturpolitiken skall medverka till att skydda yttrandefriheten och skapa

<그림 2. 문화의 민주화 단계>



이와 같이 문화의 민주화 단계에서 두드러진 문화정책은 1974년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백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위의 8가지 목표를 통해서 오늘날의 스웨덴 문화정책의 틀이 정립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고양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reella förutsättningar för att denna frihet skall kunna utnyttjas, ② kulturpolitiken skall ge människor möjligheter till egen skapande aktivitet och främja kontakt mellan människor, ③ kulturpolitiken skall motverka kommersialismens negativa verkningar inom kulturområdet, ④ kulturpolitiken skall främja en decentralisering av verksamhet och beslutsfunktioner inom kulturområdet, ⑤ kulturpolitiken skall i ökad utsträckning utformas med hänsyn till eftersatta grupperns erfarenheter och behov, ⑥ kulturpolitiken skall möjliggöra konstnärlig och kulturell förnyelse, ⑦ kulturpolitiken skall garantera att äldre tiders kultur tas till vara och levandegörs, ⑧ kulturpolitiken skall främja ett utbyte av erfarenheter och idéer inom kulturområdet över språk- och nationsgränserna.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문화정책이라는 발상은 문화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당시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상업적인 문화산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술가 개인과 예술 관련 생산 전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 보조금을 전문가 위원회의 도움으로 예술가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 과 더불어 저자의 권리 및 저작물을 사용허가 계약에 관한 북유럽 전통에 바탕을 둔 저작권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두엘룬드의 모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화의 민주화 단계에서는 정치매체(행정적인 결정권력)의 체계가 생활세계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세계의 부속화가 식민지화로 전환되는 문턱에 있다고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체계 논리에 따라 더 높은 차원의 목적합리성으로 확대됨으로써 이 체계의 명령은 그것에 통합된 구성원들의 의식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가개입을 통해서 복지국가 정책의 문화적인 교육의 확대에 목표를 둬으로써, 생활세계의 부산물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오락과 소비 차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실제로 생활세계는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에서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의 기능이 침해되었을 때에 비로소 집요한 저항을 하게 된다.

3.3 문화민주주의 단계(1975-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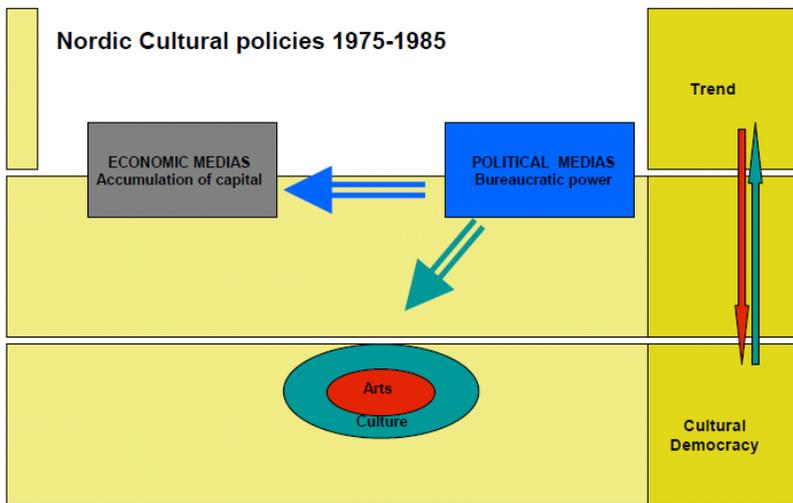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경제가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1976년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약 44년 만에 정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 국민들의 주요한 관심은 경제정책과 원자력 발전 문제였다. 1970년대 들어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악화가 정권교체를 촉진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물가상승, 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등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제까지 유지되어왔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증가 등 경제침체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파의 연합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경제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1982년의 총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고 6년 만에 정권에 복귀하게 되었다. 1982년 집권 전후에 시민당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제 3의 길' 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서

스웨덴은 중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문화민주주의 단계의 특징은 심미적 경험의 축진을 들 수 있다. 보편적인 관점과 지역적인 관점이 둘 다 유지되었다. 하지만 관심의 폭이 넓어졌고, 차츰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이로써 문화의 개념이 넓어져 아마추어 활동, 지역 주도권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관심까지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1976년 오슬로에서 열린 유럽 문화 각료 회의에서 북유럽 문화의 공통 기반에 관한 공식 정책으로 인정되었다.(Duelund, p. 16)

현 단계에서 두엘룬드의 모델은 정치 매체가 생활세계는 물론 경제 매체에까지도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 크게 확장되어서 아마추어 활동과 새로운 지역 문화 활동에의 참여도 문화에 포함이 되었다. 두엘룬드는 이 시기를 '계단 이론'에 기초하는 단계라고 지적한다. 만약 예술가가 보다 대중화된 단계로 한 발자국 내려선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어렵게 느끼는 문화적인 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한 단계 위로의 이동도 문화적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병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문화민주주의 단계>



© Peter Duelund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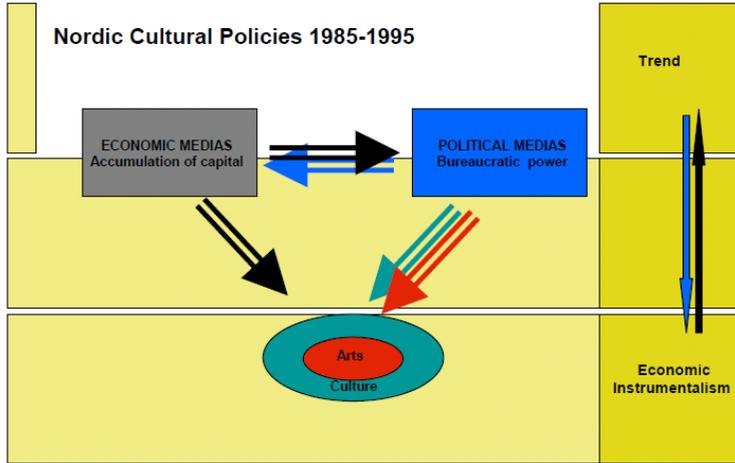
3.4 사회적 경제적 도구화 단계(1985-1995)

스웨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던 문화민주주의 단계 이후로 스웨덴 문화정책의 지평도 상당한 변화를 감수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주로 지원해왔던 방식이 경제침체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저하되었고 문화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기초 자치단체들은 마냥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으며,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980년 중반 이후, 사회적 경제적 도구화 단계 동안에는 문화정책이 대체로 다른 사회정책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도구화 단계는 스웨덴의 중앙 행정의 권한과 조직의 관리 통제 수준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지방 정부 적자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두엘룬드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 문제가 지속되었고, 시골지역은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을 줄곧 도시에 빼앗겨 공동화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뒤쳐져 곧 잊혀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는 단지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을 늦추기 위해 지역 당국은 예술과 문화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그 결과, 정부 통제의 중요성이 낮아진 반면에,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산업과 노종시자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지역당국과 해당지역은 경제적 이유로 문화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중심은 차츰 지역화되었다.(Duelund, p. 17)

<그림 4. 사회적 경제적 도구화 단계>



© Peter Duelund 2007

위의 그림과 같이 이 시기에는 정부 통제의 중요성이 떨어진 반면에 문화산업과 노동시장의 협조가 강조되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반영되었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문화정책의 활용은 예술과 문화 행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증가(경제적 도구주의)로 수면아래 잠겨있는 상황이 되었다.

3.5 경제적 정치적 식민화 단계(1995-2007)

마지막으로 경제적 정치적 식민화 단계(1995-2007)에서는 문화정책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무엇보다도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스웨덴의 문화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스웨덴의 문화정책 노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에 실시되었던 조사는 1974년의 백서와는 달리 보다 가벼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3년의 조사는 문화 영역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보다는, 1972년의 조사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달리했다. 1972년의 조사는 전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93년의 조사에서는 국민 개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Tjugo års kulturpolitik 1974-1994* SOU 1995:85) 다시 말해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같이 정체성과 관련되어있는 문화의

중요성에 무게가 주어졌다. 문화영역이 문화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1995년 제출된 보고서의 스웨덴 문화정책 목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쪽으로 새로이 정립되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부각된 것이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추진되어왔던 문화정책을 수정하고, 1996년에 새로운 국가 목표를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서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종사자들을 비롯하여,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1974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 목표를 삼게 되었다. 1996년에 새로이 공표된 문화정책의 목표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마련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문화적 경험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혁신과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상업주의의 부정적 폐해를 상쇄한다.

넷째, 사회에서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얽매이지 않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여섯째, 교육을 촉진시킨다.

일곱째, 국제적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다양한 문화 사이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Kulturpropositionen* 1996/97:3)⁷⁾

7) att värna yttrandefriheten och skapa reella förutsättningar för alla att använda den,

att verka för att alla får möjlighet till delaktighet i kulturlivet och till kulturupplevelser samt till eget skapande,

att främja kulturell mångfald, konstnärlig förnyelse och kvalitet och därigenom motverka kommersialismens negativa verkningar,

att ge kulturen förutsättningar att vara en dynamisk, utmanande och obunden kraft i samhället,

att bevara och bruka kulturar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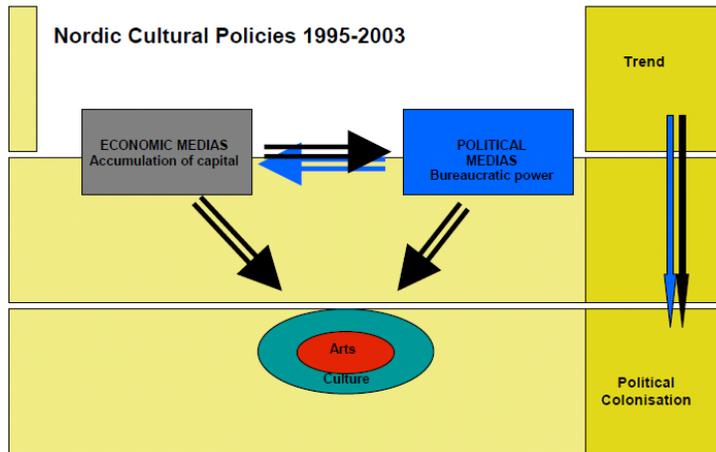
att främja bildningssträvandena samt

att främja internationellt kulturutbyte och möten mellan olika kulturer inom landet.

다시 말해서 이 단계의 문화정책은 예술과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 개인 후원자나 기업이 스폰서 역할이나 예술품 구매 및 예술 기관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기, 행정 집중화를 통한 공연 계약에 의해 그리고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불투명한 방식'을 투명하고 정치적으로 확립된 목적에 부합하는 '명시된'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예술과 문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규제를 강화하기, 국민의 국가의식을 고취하고 국제화와 레지던시 및 개인주의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적 결집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국가적 차원을 부활시키기 등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추진되었다.

두엘룬드는 1960-2007년 사이 북유럽 문화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전후 문화정책의 이면에 있던 기본 개념은 예술적 자유와 문화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예술과 문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었다. 역사적 배경, 수단, 조직, 그리고 시기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유럽 국가들이 기울인 공동의 노력을 잘 드러내준다.(Duelund, p. 18)

<그림 5. 경제적 정치적 식민화 단계>



4. 2007년 이후의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4.1 북유럽의 정치협력과 문화협력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식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협력 이 시작되었으며, 1952년에 북유럽 국가들은 각국의 의회 간 협력기구인 북유럽 협의회(Noric Council)를 발족시켰다. 이들 국가들의 문화 협력도 세계 2차 대전 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 문화 프로그램은 1967년 북유럽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발전되었는데, 북유럽 문화재단의 목표는 설립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 아울러 페로제도, 그린란드, 그리고 올란드 제도 자치구역들 사이의 문화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재단의 활동범위에는 북유럽 국가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북유럽 문화협력 전반이 포함된다.

1962년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체결된 헬싱키 협정의 수정안에 따라, 1971년 2월에는 각국 장관들의 협력 기관으로 '북유럽 각료 협의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가 발족되었다. 북유럽 각료 협의회는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가치들과,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무대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 각료 협의회에는 10명의 장관급 협의회 모임이 개최되는데, 이 모임에서는 문화부문뿐 아니라 노동, 농업, 성 평등, 입법, 환경, 보건, 교육, 금융 분야에서조차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듬해인 1972년에 북유럽 5개국들은 문화협력에 관한 또 하나의 협정에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1983년, 1985년, 1989년의 수정을 거쳐 199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문화 관련 이익단체들로 이루어진 북유럽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울러 공동 계획, 상호 조율, 공동 작업 그리고 노동 분배를 통하여 교육, 연구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5개국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넓은 의미에서 협정 당사국 사이의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http://www.norden.org>)

북유럽의 문화 협력은 예술 장르마다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각 장르마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자 스스로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NIFCA(북유럽 현대시각예술 협회; Nordic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를 들 수 있다. 이 협회는 북유럽 각료회의 산하에 설립되어, 시각 문화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자 대중 활동, 작품 제작, 예술가 관저 및 이론 활동 등의 형태로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 공간을 역할을 하였다.

NIFCA 외에도 북유럽 공연예술 공간(NordScen), 북유럽 영화와 TV 재단(NFTF), 북유럽 문학과 도서관 협회(NORDBOK), 북유럽 음악 위원회(NOMUS) 등과 같은 기구들이 있었다.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는 이들 협회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매년 약 300,000 유로를 예술가들에게 수여했다. 1999년과 2006년 사이에 총 3059건의 지원금이 예술가들에게 수여됨으로써,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북서부 지역 내에서 공동작업, 연구 및 교류 활동이 실시될 수 있었다.

NIFCA는 북유럽 국가의 젊은 직업 예술가들을 위해서 여행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디자인, 설계, 음악, 영화, 문학, 다원예술(다양한 장르가 서로 교류하는 예술) 등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예술가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북유럽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NIFCA는 예술에 대한 접근방법과 서로 다른 예술 유형 간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공연예술에 관한 북유럽 국가 간의 공동작업 기구인 NORDSCEN은 국내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북유럽 지역의 연극, 무용 및 음악 공연 분야에 대한 북유럽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재정지원을 했는데, NORDSCEN은 북유럽 전문가자격증 제도의 개발, 고급 공연예술의 진흥 및 예술/교육 연구와 혁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유럽 지역의 공연예술은 공연자 수가 크게 늘고 역동적인 예술 유형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무용 분야에서 공연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새로 등장한 공연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극장들이 북유럽

지역에 광범위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네트워크가 마련되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 가능해져서 공연예술에 대한 북유럽 국가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로 최근 지역 협력이 다시 고려되고 평가되었으며, 이로써 북유럽 협력의 문화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이러한 변화의 결실로 2007년에 북유럽 각료회의는 북유럽의 문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조직인 NCO(Nordic Culture Point)를 설립하였고 기존의 NIFCA는 폐쇄하였다.

4.2 북유럽 켈처 포인트(Nordic Culture Point)와 예술의 독립성

2006년에 리타 헤이내마(Riitta Heinämaa)가 “De fyra modulernas modell Ett nytt nordiskt mobilitets- och residensprogram”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헤이내마는 북유럽 문화 협력이 여러 예술 유형에 따라 나누어 실시되지 말고 한정된 시간의 주제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다양한 장르가 서로 교류하는 다원예술과 다문화의 공동작업 그리고 교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에 관여했던 예술가들도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Heinämaa)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과 국제화 그리고 심화된 경쟁의 영향을 받아 모든 예술 유형이 문화적 다양성과 장르 간 예술 활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스웨덴은 극장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추구하는 문화 활동, 예를 들어 사회 및 보건 영역에까지 전문분야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2007년 들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스웨덴의 문화정책 중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2007년 11월에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⁸⁾가 문화의

8)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국제화를 위해서 문화 장르를 나누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②국제적 정책기관의 임무는 보조금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③ 문화예술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보조금은 국제적 시각의 통합에 있다 ④국제적인 문화적 교류를 지원한다 ⑤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⑤문화예술위원회는 다른 정책관련 위원회와 정책

국제화에 관한 목적과 예산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국제화에 관한 발표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높은 질, 예술적인 발전, 장기간의 시각과 상호관계 ②스웨덴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강하게 자리매김 ③스웨덴에서 국제적인 문화 모임 ④다른 정책영역간의 깊은 교류.(Ministry of Culture, Oct. 2007. Ku 07.013)

그래서 이를 운영하는 기구인 북유럽 컬처 포인트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중 연극과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은 북유럽 지역의 총 예술 활동의 30-40%에 이른다.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의 2010년도 기본 예산이 2,012,215유로(한화 약 32억원)였다.

북유럽 컬처 포인트의 목표가 북유럽 국가들의 북유럽 권역 내외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북유럽 외 국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유럽 컬처 포인트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북유럽 국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하는 조건이 따른다. 그럼에도 북유럽 컬처 포인트의 중요한 의미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문화정책을 단순히 북유럽 국가들에 한정시키지 않고 문화와 문화정책의 의미를 국경너머 다른 나라에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스웨덴의 문화정책도 스웨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자국의 문화정책을 실현시키는 터전을 스웨덴 내에 한정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북유럽 컬처 포인트 외에도 1967년부터 활동해온 북유럽 컬처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단도 북유럽 국가 간의 협의 하에 발족되었으며 설립목표는 북유럽 컬처 포인트와 유사하지만 북유럽 컬처 펀드는 이벤트와 북유럽 국가들의 쇼케이스(Showcase)를 후원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콘서트, 투어, 전시나 페스티벌 참가 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북유럽 컬처 펀드 역시 세계 각국 예술가들에게 열려 있어서 프로젝트가 북유럽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 컬처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컬처 펀드 역시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 외의 다른 국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 보조기관들과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⑥국제적인 문화 활동을 위한 모든 정보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지원금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지원금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원자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문화와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불간섭주의 원칙을 스웨덴 정부는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유럽 각료 협의회 아래 북유럽 컬처 포인트가 위치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유지된다. 북유럽 컬처 포인트는 문화 예술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 전문가 집단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연출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재정 지원을 신청한 프로젝트들의 예술적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는 일을 한다. 프로그램의 주도권이 북유럽 각료 협의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과 입법자 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의 예술가들과 연출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 각료 협의회 역시 스스로 어떤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행위를 하는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재정 지원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가 외국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만의 고유한 문화정책이 국경을 넘어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팔길이 정책(Arm's length Principle)⁹⁾은 북유럽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9)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영국에서와 비슷하게 팔길이 원칙을 예술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팔길이 원칙은 영국 정부가 문화예술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은 하되, 지원금의 사용과 배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영국예술위원회에 맡긴다는 틀로써 1964년에 세워졌다. 이러한 불간섭주의 원칙을 영국 문화부 예술정책의 최우선 삼고 있다.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는 개별적 예술형태나 예술기관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Arm's Length Principle)'는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공동의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예술적 관심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예술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해야만 예술가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지만 두엘룬드는 예술 조직의 직접적인 정치적 거버넌스의 위험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미술관과 에스빅(Edsvik)이 팔길이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지원 대신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위험한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의 예라고 지적된다. 조직과 정부사이의 계약이 예술이 돈을 위한 가치와 시민들 방침에 초점을 맞춘 넓은 공공 행정의 요소로 사용되는 영국의 추세를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두엘룬드는 오늘날 실제로 영국에서와 비슷하게 문화정책 수단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Duelund, 2003)

5. 나가며

21세기에 들어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수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나노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여가시간은 확대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문화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게 될 것이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권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지만, 북유럽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북유럽 국

예술가, 극장 혹은 음악단체에 주어져야 할 지원금의 규모에 관한 결정들은 문화부 관료가 아니라 예술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 동안 이 원칙은 영국 예술지원금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왔다.”

가들은 모두 비교적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북유럽 문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경을 초월한 예술 협력을 촉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적인 협력 영역 밖에서도 초지역적, 초국가적 프로젝트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공연예술정보센터는 북유럽의 공연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각국의 예술위원회 역시 북유럽 예술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은 간략히 살펴보면, 예술가 자신의 주도권이 주요 방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가 더 설득력 있고, 전문적이고, 획기적일수록 재정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북유럽 지원 프로그램들이 북유럽 예술과 문화의 새 관객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외국 예술가들이 북유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서 경험과 지식, 전통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참고문헌

- 김윤권(편저). 2008.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 서울:법문사.
- 김윤환. 1991. 『사회주의와 연극』. 서울:느티나무.
- 손동호, 나송주, 홍재웅. 2011. 『유럽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연극제 자료조사 III』. 서울: 연극과 인간.
-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서울:후마니타스.
-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역). 2003. 『복지국가 전략』. 서울:논형.
- 하버마스, 위르겐.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I-II』. 서울:나남출판.
- 홍재웅. 2010.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자본의 축적”.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 11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Bergström, Göran & Boréus, Kristina. 2000. *Textens mening och makt: Metodbok i samhällsvetenskaplig textanalys*. Lund: Studentlitteratur.
- Duelund, Peter., ed., 2003. *The Nordic cultural model*. Copenhagen: Nordic Cultural Institute.
- Duelund, Peter. 2008. "Nordic cultural policies: A critical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4. No. 1.
- Engzell Larsson, Lotta. 2007. "Helt klart ett problem". *Fokus*, 23 Januar i-2 februari, p. 43.
- Erlander, Tage. 1962. *Valfrihetens samhälle*. Stockholm: Tidens Förlag.
- Frenander, Anders. 2005. *Kulturen som kulturpolitikens stora problem: Diskussionen om svensk kulturpolitik under 1900-talet*. Hedemora: Gidlunds förlag.
- Grönkvist, Uno. 2000 *Sponsring & event marketing*. Näsviken: Björn Lundén information.
- Heinämaa, Riitta. 2006. *De fyra modulernas modell: Ett nytt nordiskt mobilitets- och residensprogram*. Köpenhamn: Nordiska ministerrådet.(TemaNord 2006:516)
- Häll, Karin. 2003. "Kultursponsring och kulturfinansiering." *En undersök*

- ning av diskursiv förändring i fyra statliga kulturpolitiska dokum
en.* Borås: Högskolan i Borås.
- Johannisson, Jenny. 2006. *Det lokala möter världen: Kulturpolitiskt förä
ndringsarbete i 1990-talets Göteborg.* Borås: Valfrid.
- Kulturpolitik. 1996. Stockholm: Regeringen. (Regeringens proposition 199
6/97:3).
- Kulturpropositionen.* 1996/97:3
- Kultursponsring i Sverige. 1999.* Stockholm: Föreningen Kultur och Näri
ngsliv.
- Kulturpolitikens inriktning.* 1995. Slutbetänkande av Kulturutredningen.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SOU 1995:84). Stockholm: Frit
ze.
- Kungl. Maj:ts proposition.* no. 28 år 1974.
- Lidström, Bengt. 1998. *Det svenska kulturlivet och kultursponsring.* Um
eå: Statsvetenskapliga institutionen (forskningsrapport no. 1998:
4).
- Ministry of Culture Sweden. 2007. *The Internationalisation of Cultural li
fe.*(Ku 07.013).
- Nilsson, Kjell. 2002. "WTO, GATS och de offentliga biblioteken", *Biblio
teksbladet* 2002:1
- Nilsson, Sven. 2003. *Kulturens nya vägar.* Malmö: Polyvalent.
- Olevik, Josefin. "Böcker gör fattiga barn rikare". *Dagens Nyheter*, 2007-
05-28. Kultur, p. 6.
- Om världen. 2003. *Kulturrådets omvärldsanalys.* Stockholm: Statens kul
turråd.
- Peterson, Lars. 1988. *Det kulturella kapitalet.* Stockholm: Tidens förlag.
- Heinämaa, Riitta. 2006. *De fyra modulernas modell: Ett nytt nordiskt
mobilitets- och residensprogram.* Köpenhamn: Nordiska ministerr
ådet.
- Shachar, Nathan. "Framgångsrik bokbuss". *Dagens Nyheter*, 2007-03-15.
Kultur, p. 3.
- Skot-Hansen. 1999. "Kultur til tiden - - strategier i den lokale kulturpol

itik”. *Nordisk kulturpolitisk Tidskrift* no. 1, p. 7-27.

Tjugo års kulturpolitik 1974-1994 SOU 1995:85

Vestheim, Geir. 1999. Ideologi og folkebibliotekpolitikk - - eit demokrati sporsmål. *Demokratins estetikk*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SOU) 1999:129). Stockholm: Fakta Info Direkt.

www.kulturhuset.stockholm.se

<http://www.kulturhuset.se/default.asp?id=1439>

[2011-08-15]

www.kulturradet.se

http://www.kulturradet.se/upload/kr/ovriga%20dokument/kulturpolitiska__mal.pdf

[2011-08-15]

www.norden.org

<http://www.norden.org/en/about-nordic-co-operation/agreements/treaties-and-agreements/culture/agreement-concerning-cultural-co-operation>

[2011-08-15]

www.riksdagen.se

<http://www.sou.gov.se/kulturutredningen/seminarier/information..htm>

[2011-08-15]

www.riksteatern.se

<http://www.riksteatern.se/content/historia>

[2011-08-15]

www.scb.se

www.scb.se/gemensamma_filer/_Dokument/Pdf/Statistik%20for%20alla_2007_webb.pdf

[2011-08-15]

www.sou.gov.se

www.sou.gov.se/kulturutredningen/pdf/dir2007_99.pdf

[2011-08-15]

〈Abstract〉

A Research on the new paradigm of cultural policy in Sweden

Jai-Ung H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I discuss the cultural policy determined by the Swedish government and parliament. Sweden's parliament laid down the objectives and basic principles of Swedish cultural policy in 1974 and the Swedish Arts Council was founded in 1974.

In order to view on the history of Swedish cultural policy, I introduce Peter Duelund's model on cultural policies in the Nordic countries. He divides the transition of the policies in four phase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1960-1975), Cultural Democracy(1975-1985), Social and Economic Instrumentalisation(1985-1995), and Economic and Political Colonisation(1995-2007). Cultural policies always reflect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ggles to establish a frame for artistic and aesthetic expression and other direct and indirect tools that governments and the state apparatus use to fund, stimulate and regulate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art.

But after Riitta Heinämaa's report, "The Model of Four Moduler - New Nordic Program for mobility and residence" in 2006, the objective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cultural policy in Sweden were revised. The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globalisation, and growing competition

had effected all art forms, which were also facing new challenges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disciplinary practices.

For various reasons, Sweden's parliament and the Swedish Arts Council is seeking for new paradigm of cultural policy. In 2007 the new programs began and Nordic Culture point was founded to administrate them. In recent years the goal of the Swedish Arts Council is to renew and revitalize Nordic culture co-operation and art in the Nordic region and stimulate new impulses and initiatives from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operator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establishing Nordic culture co-operation and art as an important element among cultural operators in the Nordic countries and autonomous areas and making this co-operation visible in a global context.

Key words: Cultural policy in Sweden, Nordic Culture Point, Peter
Duelund's views on the cultural policies, Jürgen Habermas

홍재웅,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아파트 25동 405호

전화번호: 010-3177-9465

e-mail : theaterhong@gmail.com

접수일자: 2011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8월 21일